

6·4 지방선거 확대경

무공천에 乙이 된 '슈퍼甲 국회의원'

전남지사 후보들 현직 시장·군수에 구애 경쟁

조직력 탄탄한 단체장 잡아야 선거 유리
당원 경선도 배제...국회의원 위상 위축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공천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며 '슈퍼 갑'의 위치를 차지했던 지역 국회의원들의 위상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범과 함께 기초선거 무공천과 함께 지방선거에서 당원 경선 도입이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몸 값'이 폭락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기초의원 후보들과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지

역 국회의원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됐다. 공천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당원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 국회의원의 눈도장을 받으려 줄을 서던 시절과는 천양지차다. 오히려 지역 국회의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지역 모 단체장 후보는 "기초선거 무공천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출구전략"이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광역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당원 경선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면서 광역의원 후보들은 지역 국회의원의 눈에 들기 위한 행보에서 벗어나 지역 유권자들과의 접촉 확대를 통해 인지도 제고에 나서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과거 지역구 국회의원과 적대적이었던 인사들도 통합당에 합류하면서 광역의원 후보 경선에 나서고 있다. 전남지사 경선전도 과거와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 당원 참여가

실질상 배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지사 후보군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지원보다 지역 조직이 가장 강한 단체장 후보들과의 물 밑 연대를 통한 지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전남지사 경선 후보군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갈리면서 서로 상대 지역 단체장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치열한 줄다리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 후보 측 관계자는 "당원 참여가 배제되면서 조직이 강한 기초단체장 후보와의 연대에 나서고 있다"며 "아무래도 현역 단체장이 조직이 강한만큼 지지 확보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방선거 결과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없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는 차가 총선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모 의원은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기득권이 대부분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며 "선거 결과를 봐야겠지만 차가 총선이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4년 광주가 바뀌면 2017년 대한민국이 바뀐다"

윤장현 前새정치위원장 광주시장 출마 선언

윤장현(65)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은 지난 31일 "광주를 바꾸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며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광주 동구 금남공원에서 시민과 지지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광주시장 출마 선언에서 "항상 변화의 바람은 광주에서 시작했다. 2014년 광주가 바뀌면, 2017년 대한민국도 바뀐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양반하고 타협하면서 상생모델을 꿈꿔야"라며 "노동자에게는 국민 평균 소득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는 고임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공약 중의 하나를 소개했다. 윤 전 위원장은 "51만여 가구 중 41%인 21만여 가구가 전월세의 세입자로 살고 있는 광주에 공공주택의 주거복지 실현하겠다"며 "5개 구에 500세대의 시범주택을 건설하고, 매월 20만원의 긴급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는 밥이고 복지는 인권"이라며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사람답게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정치라는 이름으로 시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윤 전 위원장은 이날 출마선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주거 복지', '시장 혁신' 등 주요 공약도 제시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윤 전 위원장은 "벤츠로 유명한 독일의 자동차 도시 슈투트가르트의 성공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선언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 관계자와 직접 독일 슈투트가르트를 방문했다. 윤 전 위원장은 "슈투트가르트는 노동자와 사용자, 지방정부가 조금씩

양반하고 타협하면서 상생모델을 꿈꿔야"라며 "노동자에게는 국민 평균 소득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는 고임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공약 중의 하나를 소개했다. 윤 전 위원장은 "51만여 가구 중 41%인 21만여 가구가 전월세의 세입자로 살고 있는 광주에 공공주택의 주거복지 실현하겠다"며 "5개 구에 500세대의 시범주택을 건설하고, 매월 20만원의 긴급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인과 차상위 계층을 위해 매월 임대료를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노랑 호루라기 사업'도 약속했다. 경선결과 관련해서는 "경선에 매몰되면서 새정치와 정당 혁신이 사라지는 큰 문제"라며 "광주에서 새정치를 되살리고 정당 혁신의 깃발을 높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위원장은 광주 살라세오고와 조선대 의대를 졸업했으며,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을 맡는 등 시민사회운동에 전념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름다운가게 전국대표를 역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이 지난 31일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공원에서 5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hoi@kwangju.co.kr

투·개표 체험해 보세요 전남도선관위 무안 청사에 선거홍보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일부터 무안 청사에 선거홍보관을 운영한다. 선거홍보관은 선거자료를 수집·전시하고, 선거 체험과 교육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남선관위 무안청사 이전과 함께 마련했다. 이 선거홍보관에는 제6회 전국동

시지방선거에서 사용하게 될 사전투표기와 신형 기표소가 설치돼 있고, 투표체험과 모의 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개표해 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또 미래의 대통령선거 방송토론 체험, 당선증 수여식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학생·시민 등 많은 도민들이 선거홍보관 관람과 민주시민정치교육을 통해 6·4지방선거의 투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홍보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문의 061-288-8144. /오광익기자 kroh@kwangju.co.kr

기초선거 무공천에 1대1 구도 만들기 후보 단일화 붓물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하면서 광주·전남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단일화를 모색하는 등 후보 단일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인해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현역 프리미엄을 얻고 있는 현역 기초단체장을 쉽게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 현역과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철수 신당'(새정치추진위원회)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했다고 밝힌 허남석 군수와 옛 민주당 출신인 유근기 의원 간 '1대1 대결 구도', '현역 대 비현역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영규 전 여수시의회 의장과 송태수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나선 여수시장 민주당계 단일후보로는 김영규 전 의장이 확정됐다. 이들은 최근 시민 50%(1000명), 민주당원 50%(1만4000명) 등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실시 결과로 후보를 결정했다.

곡성군수 3명 단일화 허남석-유근기 대결

여수시장 여론조사로 민주당계 김영규 확정

광주 서구청, 북구청장 후보단일화 원칙 합의

광주에서도 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이춘문·신현구·김영집·신광조 등 새정치연합 측 예비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하고 조만간 단일화 기구를 구성해 늦어도 4월말까지는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수 선거에 나선 김호산, 나상욱, 양승일 예비후보도 후보 단일화에 대한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조만간 단일화를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함평군수와 해남군수, 영암군수 선거에 뛰어들 일부 예비후보들도 불일치에서 활발하게 단일화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에서도 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이춘문·신현구·김영집·신광조 등 새정치연합 측 예비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하고 조만간 단일화 기구를 구성해 늦어도 4월말까지는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구청장 출마 예정자인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과 이미 출마를 선언한 송태종·곽복종·김병도 예비후보는 1일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후보단일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향후 후보 단일화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후보단일화 논의에 대해 일부에서는 새정치구현이라는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깨뜨리는 것이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치공학적 야합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에서도 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이춘문·신현구·김영집·신광조 등 새정치연합 측 예비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하고 조만간 단일화 기구를 구성해 늦어도 4월말까지는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구청장 출마 예정자인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과 이미 출마를 선언한 송태종·곽복종·김병도 예비후보는 1일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후보단일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향후 후보 단일화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후보단일화 논의에 대해 일부에서는 새정치구현이라는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깨뜨리는 것이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치공학적 야합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aTour (하나투어) featuring travel packages, London Stock Exchange logo, and various tour options with prices and dates.